

電力事業의 어제와 오늘

Electric Power Industry-Yesterday and Today

◇ 漢城電氣와 民間點燈

해마다 4월 10일은 電氣의 날. 지금으로부터 꼭 85년전인 1900년(光武 4년) 4월 10일 서울 鍾路거리에 文明의 빛 電氣가 漢城 電氣會社에 의해 처음으로 點火된 것을 記念하는 날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電氣事業의 뿌리는 길고 그 발자취 또한 榮辱이 엇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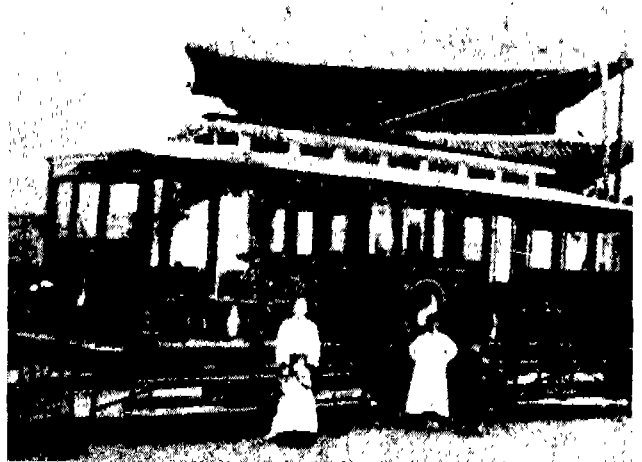
우리나라 電氣事業은 멀리 1898年 1月 18日 美國人 폴부란과 보스트위크가 金根培, 金斗昇등 두사람의 명의로 漢城五署區內的 電氣路車, 電氣燈 電話筒등 가설의 請願을 農商工部 大臣에게 제출 同日字로 인가를 받아 漢城電氣會社를 설립한데서 비롯된다.

이 漢城電氣會社は 1898年 10월 17일 西大門, 洪陵(淸涼里)간의 軌道부설과 電線路의 가설 공사를 기공, 같은해 12월 25일에 완공하는 한편 東大門(現 東大門綜合市場內)에 75kW의 汽力發電所를 설치했다.

그리고 客車 10대와 皇室專用電車 1대를 조립하여 당초 1899年 5월 1日(月曜日)에 내외 귀빈을 초청, 試乘 및 開通式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발전기 고장으로 3일로 연기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5월 4일에야 겨우 東大門과 新門路 區間的 試運轉에 성공, 5월 20日 부터 市民에게 공개 商業運轉에 들어 갔다.

이 試運轉에는 몰려드는 市民을 막기 위해서 兵丁 300명과 巡檢 150명이 동원되었고 商業運轉후에는 電車를 타기위해 주머니를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 등 큰 人氣를 끌었다.

漢城電氣는 또 1899年 12월, 電車線路를 鍾路에서 舊龍山(元晔路)까지 연장하는 한편 1899



漢城電氣時代의 電車

년 8월에는 처음에는 없었던 정류장과 賣票所를 설치, 1900년 4월 9일 부터는 지금까지 낮에만 운행하던 電車를 밤 10시 까지 연장운행키로 하였다.

이 電車의 야간운행에 따라서 4월 10일, 鍾路에 있는 정류장과 賣票所의 照明을 겸하여 비로소 街路燈 세개에 點火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民間電燈(景福宮內 乾清宮에는 1887년 봄에 點燈)의 시초가 된다.

한편 漢城電氣는 1901년 4월 東大門발전소의 증설(125kW)과 함께 配電設備를 가설하는 등 電燈事業을 서둘러 같은해 6월 17일 慶運宮 즉 지금의 德壽宮에 電燈 6개를 點火하고 뒤이어 6월말에는 진고개의 日本人 商街에 약 6백燈의 電燈을 보급함으로써 電燈事業은 점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漢城電氣는 이와같이 事業擴張을 서둘른 결과 財政難에 봉착, 1904년 7월 美國 코네티컷州의 엠포이어트라스트會社에 일체의 재산을 담보로 1백만 달러 限度의 借入계약을 맺고 商號도 韓美電氣會社로 바꾸었다가 1908년 日本財閥에 의해 韓日瓦斯株式會社가 설립됨에 따라서 운영난이 더욱 加重되어 1909년 6월 24일 끝내 韓日瓦斯에 170萬圓으로 매수되었다.

◇ 日帝治下の 電氣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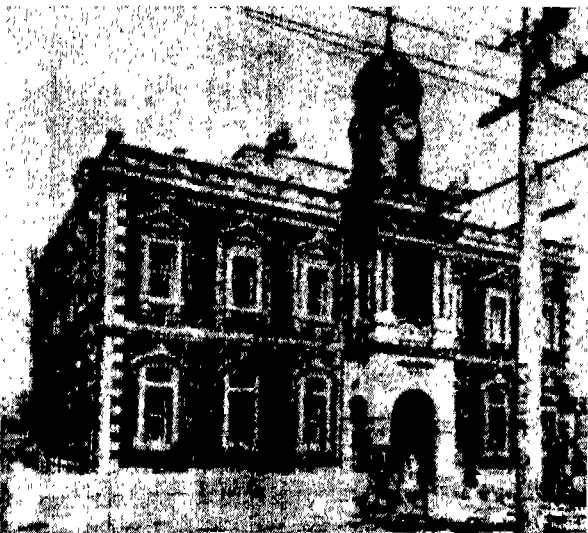
1908년 9월 日本에서 설립된 韓日瓦斯는 1909년 11월부터 서울 市內에서 가스供給을 시작하였다가 韓美電氣를 매수 社勢를 확장하여 1915년 9월에는 商號를 京城電氣株式會社로 바꾸어 이후 우리나라 配電事業의 主宗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하여 國內外的으로 1910년의 소위 韓日合併과 世界大戰등의 격동기를 맞아 日本資本의 韓國침투가 급격히 늘어나고 電力需要도 증가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電燈事業체가 속출 1907년 부터 1921년사이 66개의 電氣事業체가 허가되어 地方 小都市까지 電氣가 보급 市內配電時代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小規模電氣業체의 亂立에는 大戰後 가스機關과 重油機關등 內燃機關의 발달이 하나의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電力이 電燈으로부터 産業의 原動力으로써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종래의 地域事業主義에 의한 電氣事業의 亂立은 行政的인 統制와 調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朝鮮總督府는 1931년 12월 發電 및 送電網計劃과 電力事業의 企業形態, 그리고 配電統制로 구분되는 電力統制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1932년 2월 鮮朝電氣事業令을 제정하고 193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北部地方에는 大壩와 流域變更方式 등에 의하여 당시 世界屈指의 鴨綠江水電(계획 70萬kW)을 비롯하여 長津江, 虛川江, 富寧水電 등의 大規模水電이 개발되었고 送電設備로는 1935년 10월 長津江과 평양 사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154kV가 등장하고 다시 1941년 6월에는 虛川江水電에서 淸津과 羅南에 이르는 東洋最大의 220kV 송전선이 완성되었다.

이와같은 大規模水電의 개발로 北部와 西部地方에는 興南窒素肥料 등 重化學工業이 유치되어 日本의 大陸침략을 위한 韓國의 兵站基地化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配電事業은 지금까지의 一地域 一事業體制를 지양하고 전국을 京城電氣(中部地方), 南鮮合同電氣(南部地方), 西鮮合同電氣(西部地方), 北鮮合同電氣(北部地方) 등 西大配電會社로 통합했다.

그뒤 太平洋戰爭이 확대됨에 따라서 日帝는 高度의 國防體制를 갖추기 위해서 電力의 國家管理를 단행 1943년 4월 「朝鮮電力管理令」을 공포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43년 7월 기존 電力會社가 운영하고 있던 주요 발전 및 송전사업을 통합하여 특수회사로서 朝鮮電業株式會社를 설립했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에 걸쳐 全國 都市에 分立했던 우리나라 電力事業은 發送電과 配電의 두 개 사업부문으로 정비되었다.

◇ 解放前後的 電力事情

이처럼 日本이 대규모 水電을 개발한 결과 1945년 해방당시 전국의 발전설비는 水力 1,586,000kW, 火力 137,000kW 합계 1,723,000kW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南韓의 발전설비는 水力 62,000kW, 火力 137,000kW 합계 199,000kW로 全國설비의 11.5%인데다가 그나마 北韓의 水主火從型에 반하여 火主水從의 낡은 火力이 主力을 이룸으로써 年間 平均發電量은 北韓이 943,000kW로 全國의 96%를 차지하였고 南韓은 43,000kW로 4%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방과 함께 南韓은 北韓으로 부터 總需要電力의 60내지 66%를 受電하여 왔으나 1948년 5월 14일 北韓측의 일방적인 斷電으로 南韓全域은 극심한 電力難을 겪게되어 電力史上 이른바 暗黑期를 맞게되고 이러한 현상이 19년이나 지속되었다.

이와같은 사태하에서 당시의 美軍政은 唐人里, 寧越 등 老朽火電을 긴급 보수하는 한편 越冬對策으로 發電艦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FOA원조자금으로 1954년 부터 1956년까지 10萬kW의 火電(唐人里 3호 馬山火電, 三陟火電 1호기)개발과 6·25動亂으로 華川水電의 收復은 그나마 電力需給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 電力事業의 現況

그러나 韓國의 電力事業은 1961년 7월 1일 朝鮮電業과 京城電氣 그리고 南鮮電氣 등 舊電業三社를 통합, 韓國電力을 창립 電源開發事業을 最優先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轉機를

맞아했다.

韓電은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친 電源開發 5 個年計劃을 추진함으로써 1964년 4월 1일을 기하여 해방후 19년 동안이나 되풀이 되었던 制限送電을 해제, 電力解放을 이룩했다.

그리고 1982년말에는 마침내 電源施設이 1千萬kW를 돌파하고 오늘날에는 다시 1,420萬kW를 확보하여 需給의 長期的인 安定을 이룩함과 동시에 電力面에 있어서도 北韓을 압도, 1948년 5·14 斷電의 恨을 설욕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電源開發計劃은 1·2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먼저 당시 가장 긴급한 과제였던 電力難 해소를 위한 긴급 및 단기대책에 力點이 주어졌다. 그러나 1973년의 石油波動 이후의 3·4·5차 5개년계획은 石油爲主의 개발계획을 一大修正 發電燃料多元化를 위한 轉換을 試圖함과 동시에 특히 原電과 石炭을 主軸으로한 脫油對策이 강력히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全体 발전설비 가운데 原電과 石炭火電은 각각 13.5%와 24.3%로 늘어났고 다시 오는 1996년말에는 原電 33.3% 石炭火電 33.3% 石油火電 13.3%로 構成比가 바뀌어져 原主火從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1970年代 후반부터 우리나라 電源開發事業에는 우리의 기술과 機資材가 대폭 참여함으로써 발전소건설의 自立度를 크게 향상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두드러진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같은 電源의 大型化和 설비의 증가로 1976년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345kV 超高壓 施設이 등장함과 동시에 給電自動化등 설비의 現代化도 크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1965년 12월에는 農漁村電化促進法이 制定公布되어 農漁村電化가 政策事業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電化率은 현재 98.5%에 이르러 先進工業國 水準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밖에도 지난 20년에 걸친 우리나라 電力事業의 이같은 눈부신 발전은 電氣工業을 촉진시켜 重電機時代의 開幕을 가져왔고 그밖의 關聯産業의 育成發展등 그동안 展開되어온 우리나라의 高度經濟成長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電力은 곧 國力. 이처럼 明暗이 엇갈린 지난 1世紀에 걸친 電力事業의 어제와 오늘을 겨레의 발자취와 함께 再照明해 볼 때 우리들의 감회는 한결 새로운 바가 있다.

